



광주일보-한국학호남진흥원 공동기획

호남 누정-광주 <17> 불환정



사방이 확 트인 정자.



광산구 등임동 내동마을 산중턱에 있는 불환정은 조선 중기 때 처사 임덕원의 정신이 깃든 곳이다.

아름다운 江山은 삼공의 벼슬과도 바꿀 수 없다

<조선시대 삼정승과 같은말>

조선 중기 임덕원이 광산구 내동마을에 건립
곧은 정신 지켜내려 심산유곡에 초막 짓고 살아
처음 떠집이었을 당시 '복룡암'으로 불려
후대 몇 차례 보수 1903년 기와지붕으로 개량
임씨들 선조 금호 임형수 '목각책판' 보관

세 칸 정사를 이곳에 세워놓고
의연히 숙된 거처는 멀리했노라
성근 울타리엔 버드나무와 구화 심고
책상에 깨끗한 거문고와 책이 있을 뿐
입은 다물고 남새밭 길을 매고
눈썹은 모으며 약초를 캐었네
한가로이 노니니 속세 생각 사라지고
령 빈 욕심은 그저 알게 되노라
(임덕원의 '원운(原韻)')

그 누정을 찾아가면서 '그 풍경에 그 주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자연의 일부인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산수를 닮기 마련이다. 도자기는 태토(胎土)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신토불이(身土不二)와 같은 이치다. 자연의 엄정한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렵없는 이들의 과욕은 정한 이

치를 넘곤 한다. 오늘날 도처에서 벌어지는 후안무치는 그런 부끄러움과 염치를 땀겨진 결과물일 터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다. 임동을 지나면서 겨울이 서서히 본성을 드러낸다. 문 언저리까지 와서 찬 기운이 서성이는 걸 보니 조만간 추위가 몰아치려나 보다. 이 산야에 눈 내린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겠다.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러나 설경만큼이나 새하얗고 시퍼렇게 살아 있을 옛 선비의 정정한 정신을 생각하자니 숙연해진다.

불환정(不換亭)은 조선 중기 때의 처사 임덕원(1713-1787)이 지었다. 소재지는 광산구 등임동 내동마을 어등산 북쪽 기슭. 사실 이 산중에 누정을 지은 처사 임덕원의 심중을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다. 다만 시대는 다를지언정, 세상이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그의 심사를 어렵잖이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임덕원이 활동하던 시기는 당쟁과 당파, 사화의 광풍이 몰아치던 조선 중기와 맞물려 있다. 그는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해 부제학을 지냈다. 그러나 을사사화의 부당함을 주장해 제주목사로 쫓겨났고 급기야 파면에 이른다.

대낮인데도 오솔길과 이어진 산길은 다소 어둡다. 산자락 아래 몇 칸의 집들이 자리하지만, 외지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은일을 택해야만 했을 처사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동안 다녔던 누정들이 마을이나 들판, 산의 초입에 자리한 것에 비하면 불환정은 격질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발걸음마다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음이 밝힌다. 저들의 부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노래가 아닌 '경고'로 다가온다. 저갯거리 속된 일에 묻혀 지내는 이의 방문인 것을 어쩌리. 세상의 아귀다툼은 끝이 없고 모사와 모략은 날로 승하여지는데, 고결한 처사가 머

물렀던 산중에는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만 들릴 뿐이다.

불환정이라는 누정 이름은 '삼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이라는 고시(古詩)에서 유래한다. 송나라 시인이 삼공(조선시대에는 삼정승과 같음)이 높은 관직을 주어도 강산과 바꾸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선비의 기개와 고고함을 상징하는 말로 곧잘 쓰인다.

상량문에 '승정기원후삼신묘(崇禎紀元後三神廟)'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정자는 1771년(영조 47)에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는 임덕원이 두어 칸의 띠집을 지어 거주했지만 후대에 몇 차례의 보수 작업을 펼쳤다. 1903년 지붕을 기와로 개량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임덕원이 처음 띠집을 지었을 당시에는 복룡암(伏龍巖)으로도 불렸다 한다. 사람들이 띠집이 웅이 얽드려 있는 형상을 닮았다는 데서 그와 같은 이름을 붙였다.

다음은 기우만(奇宇萬)이 쓴 '불환정중수기(不換亭重修記)' 일부다.

"삼공의 벼슬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강산의 승경(勝景)을 극찬한 말이다. 주인의 현명함이 엿보이는 말이다. 보편적으로 좋은 강산은 항상 있어도 좋은 주인은 항상 있지는 않는 법이다. 강산의 경치로만 따진다면 어등산(魚籠山) 아래와 금강(鎭江)의 물가가 승경으로 꼽힐 것이다. 여기에서 나고 자라 늙어 죽음을 이룬 자들을 어찌 한정할 수 있겠는가? 다만 세상을 초탈하여 사사로운 벼슬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은일하며 죽기까지 이산수의 좋은 주인을 꼽으려면 임선생을 추대할 수 있다."

정자와 관련된 임씨들의 선조인 금호(錦湖) 임형수의 목각책판이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도난 등이 우려돼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다. 목판은 서하(西河) 이민서가

광주목사로 재직할 당시 '금호문집'을 펴내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온다.

산문 하나 없는 이 산중에 정자는 홀로 쓸쓸하다. 아니 아름답다. 주인장의 품성, 아니 기풍을 닮아서인지 담담하면서도 기풍이 있다. 주변의 풍경은 가히 명승에 비견할 만하다. 뒤로 수림은 울창하고, 근데근데 녹죽이 우거져 맑은 청정한 기운이 완연하다. 정자 한쪽에는 석간수를 끌어온 가느다란 통로가 설치돼 있다.

정내 앞 마당에는 돌을 어긋아섯 쌓아 올린 연방죽이 있다. 주위로 다종다양한 풀과 이름모를 꽃들이 피어 있다. 방죽 안에는 작은 섬이 들어앉아 있는데 주인장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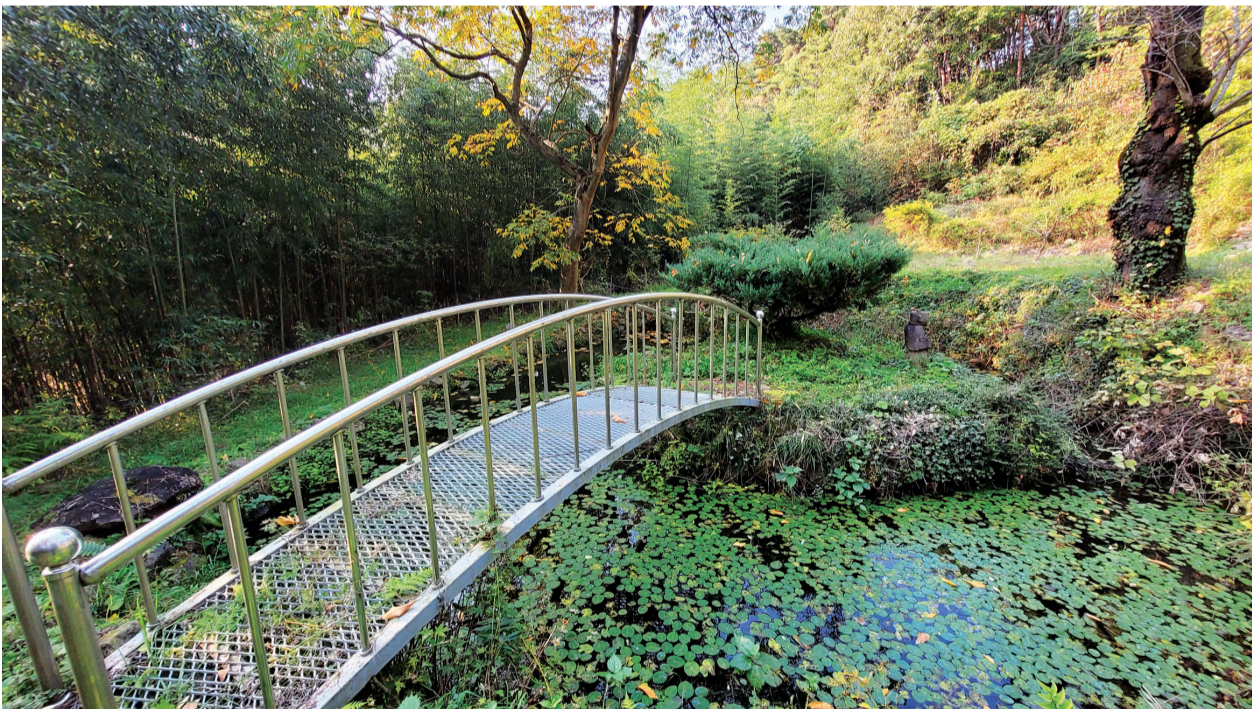
벼슬 따위에 애연결면하지 않고 '진흙'에 몸담지 않았던 선비가 그리워지는 시대다. 곧은 정신을 지켜내려 심산유곡에 초막을 지었던 이가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끝없이 권력을 탐하는 오늘의 세대에서 처사의 정신이 그렇게 빛난다.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불환정은 일반의 누정들이 마을이나 들녘에 자리하는 것과 달리 깊은 산속에 있다"며 "당쟁과 사화의 정치 현장을 떠나 은거를 택했던 처사 임덕원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좋은 강산은 항상 있을지언정 좋은 주인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잠시 생각하며 산을 내려온다. 강산에 비견되는 그런 주인도 있다는 사실이 위안으로 다가온다. 비록 역사 속에서지만 말이다. 임덕원의 '절구'라는 시를 가만히 읊조리며 다시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으로 내려온다.

"남쪽 발자국을 애써 일구고/ 쓸쓸히 북창 앞에 잠을 자네/ 흐릿한 마음이 어찌 도연명 뿐이겠는가/ 혹은나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지" ('절구(絶句) 전문)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



누정 앞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과 구름다리.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